

# 자신을 밝게 하려면 남의 밝은 면만 봐야

##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지원스님은 ...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범어사 강원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국장 역임. 1991년 삼보사 창건. 1999년 육지장사 창건. 현재 중앙종회의원이며 삼보사와 육지장사 회주이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 <장명등>과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가 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퍼붓던 눈발이 조금 성글어지니 싶더니 또 다시 거침없이 쏟아진다. 눈을 한 겹 두른 차창 밖의 풍경은 파스텔화처럼 부드럽다. '저 많은 눈들이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 떨어진 자리가 바로 제자리가 되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백석음에 들어섰다. 커다란 기산저수지를 지나서 셋길로 접어들자 '육지장사'라는 팻말이 보였다. 양주 도리산에 자리잡고 있는 육지장사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육지장보살을 모신 지장도량이다.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계와 축생계, 아귀계와 지옥계 등 육지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도량이라는 의미에서 사명(寺名)을 육지장사라고 지었다. 150평이 넘는 대웅전, 수선당과 선재당은 흰줄하고 웅장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그런 기운을 지니고 있다.

수선당에 있는 다실에 들어서자, 도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방 한 가득 채우고 있다. 심우도 병풍이 있는 다실은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실 수 있게 개방된 공간이다. 평생을 포교 일선에서 활동 해온 지원 스님의 몇 가지 신념 중 하나가 '사람은 대중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절 문턱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어 이산중에  
당신이  
올가 해서  
석등에 불 밝혀어  
어둠을 쓸어내고

막들은  
보름달 하나  
슬가지에 걸어뒀소.

지원 스님의 시 '만월(滿月)' 전문이다. 산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어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석등에 불을 밝혀두는 것도 모자라 하늘의 보름달을 따다 소나무 가지에 '책' 하니 걸어 둔 스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님과 마주 앉았다. 지원 스님은 기도 스님으로도 통하기에 먼저 스님이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쭙었다. 스님은 육지장사를 개원하게 된 인연부터 풀어나 갔다.

"저는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나서 천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임대법당과 전세법당을 10여 년간 전전하다 은평구에 400평의 법당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의 원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일관음기도를 세 번 올렸습니다. 은평구에 삼보사 법당을 마련하여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던 중 건강이 나빠졌어요."

사경을 헤메릴 정도로 병이 무거웠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고 그 자체가 지옥고로 여겨졌기에 아서 빨리 몸 바꾸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지장기도 덕분인지, 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위중한 병이 나

았고, 스님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천일지장기도에 들어갔다. 천일지장기도에 대한 안내문을 돌린 일도 없었는데, 기도 동참자가 수백 명이 넘었고 기도 동참금이 수억 원이 들어왔다. 지원 스님은 이것 또한 아직 까지도 기이한 일로 꼽고 있다. 스님은 단원들의 보시를 한 번도 허투루 써 본 일이 없기에 귀한 기도 동참금을 더욱 뜻깊은 일에 쓰고 싶었다. 그래서 해동에서 제일가는 지장성지를 조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현몽에 따라 도리산에 도리천궁인 육지장사가 세워진 것이다.

"이 시대의 한국불교가 지장보살과 같은 보살정신을 지닌다면 사회가 평화롭고 남북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장보살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예를 들면 농사짓는 지장보살, 장사하는 지장보살, 요리하는 지장보살, 운전하는 지장보살 등 다양한 지장보살이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면 평화와 행복이 절로 구현된다고 생각해요. 이곳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이지요."

스님은 천일지장기도를 세 번이나 올렸고, 지금은 만일지장기도를 봉행 중이다. 평생에 천일기도 한 번을 봉행하기도 힘든데, 천일관음기도를 포함하여 여섯 번이나 성만했다. 6000일, 16년이 넘는 세월동안 올린 기도도 모라자서 만일기도를 받았었다고 하니 그 치열한 수행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스님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했다.

"기도를 비롯하여 참선과 사경(寫經)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굳은 신념이 형성되어 매사에

### 다시 태어나려 시작한 지장기도 건강되찾고 지장성지 조성케 해

의욕적이고 열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의는 마치 전등을 밝혀주는 발전소와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선 발심할 것을 강조합니다. 발심이란 마음을 낸다는 말인데 어떤 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발심을 신념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곧 기도와 참선과 사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진정하게 갈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먼저 우리의 신체구조가 변한다. 일념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우측뇌에서 β 엔돌핀(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β 엔돌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켜주며 의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저는 갖가지 일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은 심중팔구 제아무리 복잡한 문제일지라도 대개는 실상인 마음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발생하고 그 문젯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때문에 그것에 파묻혀 더욱 많은 고민거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신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병든 경계문제이든 모든 문제가 결국 해결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놈은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만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비근하고 확실한 방법이 누구나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이라고 할 때 소리 내어 말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념 또한 언어에 속합니다. 한 번 말의 힘을 자각하게 되면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자유롭게 좌우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말이란 천하력을 가지기 때문에 말 하나를 통해서 불행했던 일상의 생활이 밝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며 병약하던 몸이 건강해지기도 한다"면서 언어와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었다. 스님의 이러한 철학은 오랜 세월동안 포교일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살아 있는 법문이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가진다.

종교의 출발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그 열망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기에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이다. 육지장사는 이미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템플스테이를 통한 포교는 무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0~40대를 위한 워크숍을 해보기도 했으며, 트루터 동호회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꾀했습니다. 와인동호회를 만들기도 하는 등 젊은이들의 취향을 아는 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불제자의 할 일 아니겠어요?"

철심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한다. 절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1700년 동안 내려온 스님들의 건강비법을 조금씩 개방하여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스트레칭과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휴식형 사찰체험'임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다. 육지장사의 템플스테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단식수행프로그램과 게르마늄 속돋움구체형, 랍락추나 체험이다. 단식다이어트 프로그램에는 1700년 동안 내려온 스님들의 건강비법이 녹아있기에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올해 박사학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취급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결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점,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사교회, 위생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

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경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 탁체를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목은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도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발심은 전등 밝히는 발전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님은 '호르몬은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상호전달 체계를 만들어 온 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마치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육지장사를 지을 때부터 대중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중전으로 오르는 49개의 계단은 객석이 되도록 했고, 관객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옥(玉)으로 깔았다. 이곳 육지장사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도 하는데 큰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락 공연이었다. 산중에서 락공연을 한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포고관이다. '사상과 종교에 관계없이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문화' 이기에 스님은 문화를 통해서 여러 세대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부전에서 온 대어섯 명의 사람들이 게르마늄 속 탐은구체형과 경락추나 체형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지원 스님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불잡

## 몸은 나의 생각 날날이 들어 듣는대로 몸과 삶이 변한다

는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쌍화차가 좋다면서 앞이 작은 다상을 내어준다. 이런 극진한 대접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종교의 문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종교라는 공간이다. 지원 스님은 종교의 이러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절을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갑게 맞이해준다.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비법'을 가르쳐주시기를 청했다.

"자기 자신을 밝게 하려는 사람은 남의 행실 가운데 밝은 면만을 보아야 하며, 밝은 행실을 기쁨으로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마음 속에 불쾌한 모든 기억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실상과 언어의 힘을 믿고서 희망과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로 가득 찬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단순명쾌하고 머리와 가슴에 쏙쏙 박히게 만든다. 절마당에 조성된 의상조사의 '화엄경 범성계' 도를 화살표를 따라 걸어 보았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첫 발심 했을 때가 바른 깨달음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문운정 수필가(본지 객원 기자) blueyon6@hanafos.com

위과정에 등록해 놓았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을 날날이 엷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

色)이라는 말은 삶의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가령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신의학자 '디팍초프라'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상태는 내분비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육체적 활동과 감정

###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5



## 비에산 연력사의 중흥조 료겐(良源) ①

료겐(912-985)은 정월 초삼일에 열반했다고 해서 원삼 대사(元三大師)로 널리 알려져 있다. 료겐에게는 이 외에도 여러 별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뿔[角] 대사와 콩[豆] 대사이다. 뿔 대사는 료겐을 빼와 가족만이 남은 양상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지칭한다. 역병의 신을 물리치는 귀신상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민가에서 부적으로 사용됐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역병이 창궐하던 시대, 민중은 역병이 도는 것을 역병의 신이 마을을 배회하는 것으로 여겼다. 료겐은 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춘 자세로 눈을 감고 선정에 들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변해 불멸을 수호하는 야차가 됐다. 이를 옆에서 지켜 본 제자가 재빨리 그림으로 옮겼다. 료겐은 야차로 화한 자신을 그린 그림을 목판에 새겨 인쇄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민중에 배포해 집집마다 문 앞에 붙이도록 했다. 이를 붙인 집안에서는 역병이 물러가고 일체의 재액마저 면할 수 있었다.

콩 대사는 가사를

시호는 자혜(慈惠) 대사이다. 그의 어머니가 자식을 얻기 위해 관음보살에게 기원했는데, 꿈에 바다 위에 앉아서 천상을 바라보던 중 해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낳았다고 한다. 그는 17세인 928년 천태종 분산 연력사에서 출가해 료겐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천태와 밀교를 두루 섭렵한 료겐의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나라(奈良) 법상종과의 종론 논쟁에서였다. 그로부터 150년 전 중조 사리야(最澄)의 경우와 같았다. 료겐은 937년 나라 흥복사의 유마회에서 기쇼(義昭)를 논파한 것은 물론, 963년 궁중에서 개최된 법화8강의 논석에서 법상종을 대표한 호조(法藏)와 대결해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호조가 법상



료겐대사상

의 교의인 '정성2승 불성불의(定性二乘不成佛義)에 의거해 부처가 될 수 없는 자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료겐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일체중생개성불(一切衆生皆成佛)'의 천태의 입장을 주장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호조는 료겐에 대해 "자네의 변은 부루나 존자와 같다. 내가 어찌 대적할 수 있

## 역병 돌 때 야차 모습 새겨 집집마다 붙이게 해 초상 33개 9단으로 쌓아올려 전답지키는데 활용

입은 귀여운 모습의 료겐 초상 33개를 9단으로 쯤처럼 작게 쌓아 올린 모양으로 이 또한 부적이다. 콩 대사 부적은 주로 농민의 전답을 지키는데 활용됐다. 여의륜관음의 화신으로 알려진 료겐은 관음 33신의 사상이 결합돼 중생에게 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소멸케 하는 위력을 가진 존재였다. 이처럼 그는 인간을 액난에서 구제하는 황마 대사나 액제(厄除) 대사로 불려 왔다. 료겐은 미래의 희망을 품은 민중 심리를 파악해 신사나 사찰에서 신불의 위력으로 길흉을 점치는 오미쿠지를 창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교가 고원한 사상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의 눈높이에서 민간신앙을 방편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료겐은 천태종 최고지위인 18대 좌주(座主)로서 쇠퇴해 가는 종단을 중흥시킨 인물이다.

겠는가"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료겐을 부처님 10대 제자 중 설법제일인 부루나 존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966년, 료겐은 천태의 좌주로 임명됐다. 좌주가 된 료겐은 승려육성을 위해 교학을 진흥하는데 힘썼다. 이를 위해 료겐은 광학수의(廣學聖義)라고 하는 논문문답의 의식을 확립시켰다. 현재에도 일본불교에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5년마다 한 번씩 법화대회를 개최해 승려의 능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26개조 기청문(起請文)'을 제정해 산내 승가의 규율을 바로잡았다. 료겐은 기청문을 통해 승려의 사치를 비롯해 사적인 승병의 무장을 해체시키고 사형(私刑)을 금지시켰다. 포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료겐은 매월 2회에 걸쳐 포살을 행할 것도 명했다.

한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중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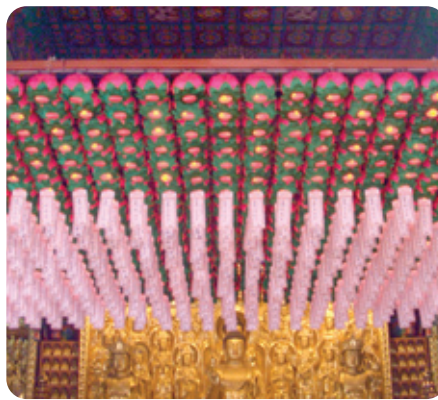


윤창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경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시공요금: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